

## 보도자료

2022. 9. 25.(일요일) 8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: 경영기획본부 ESG확산팀 신태영 팀장 (061) 350-1391

배 포 : 경영기획본부 ESG확산팀 박지애 주임 (061) 350-1394

**KCA, “폐지 자원순환 친환경 종이백 도입”****ESG 실천 100일 캠페인 일환, 민간 협력으로 탄소중립 실천 강화**
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‘KCA’)은 ESG 실천 100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창립50주년 기념 종이백을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.
-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KCA는 현대백화점그룹이 ‘폐지 자원순환 방식’으로 자체 개발한 친환경 쇼핑백을 적용해 ‘KCA×더현대 그린 프렌드십 종이백’을 제작했다.
  - 이번 종이백은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자체 수거한 폐지를 활용한 100% 재생용지 사용, 잉크 사용 최소화, 무코팅 등이 특징이다.
- 자원순환과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그린프렌드십 종이백은 본원 및 전국 지방본부 등에 총 2만개가 지급되어 각종 행사와 고객응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.
- 정한근 KCA 원장은 “새로운 시도를 통해 민간-공공 협력의 ESG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탄소중립 실천의 시너지를 높이하고자 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영을 위해 앞장설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KCA는 또한 탄소중립 실현 강화를 위해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친환경 종이백 확산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.

[사진] 폐지 자원순환 방식의 KCA 창립50주년 기념 친환경 종이백(왼쪽)과 현대백화점그룹 친환경 종이백(오른쪽)

